



얼레지는 물 기슭의 시원한 곳을 좋아한다

화단 및 분화용 얼레지 재배기술

얼레지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
Erythronium japonicum Native to Korea.

송정섭 | 이학박사

T.031-290-6140,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장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우리 자생화는 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은은하며 한결같은 모습인 것이 매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얼레지 꽃을 보면 여기에 아름다움이 추가되어도 좋을 듯 싶다. 자생화 중에 얼레지만큼 크고 화려한 꽃도 드물지 않나 싶기 때문이다. 4월 중하순경 물이 있는 계곡 주변으로 군락을 이루며 꽃을 피워 대는 얼레지의 환호성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탄성을 지른다. 번식이나 재배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정원이나 분화용으로 시도해 볼만한 종류이다.

1. 생태적 특성

얼레지는 전국의 산 속 비옥한 곳에서 군락을 이루는데 특히 계곡 주변에 집중적으로 무리지어 자라는 백합과의 다년초이다. 잎은 보통 2장으로 두터우며 녹색 바탕에 자색의 얼룩이 있고 잎자루는 길어서 땅속에 묻힌다. 꽃은 4~5월경에 10~20cm 길이의 꽃줄기 끝에 한 송이가 달려 아래를 향해 핀다. 꽃잎은 홍자색으로 뒤로 말리고 자주색이나 안쪽 밑 부분에 짙은 W자모양의 무늬가 있다. 얼레지는 추위나 음지에는 매우 강하나 더위엔 약한 편이다. 자생지에서 간혹 흰색 변이종을 찾을 수 있다.

2. 재배기술

얼레지는 꽃이 매우 아름다워 화단이나 분화용으로 우수한 관상용 소재이다. 원래는 봄에 나오는 신초를 뜯어 산나물로 유명하며 땅속의 알뿌리(비늘줄기)는 말리거나 생약으로 사용하는데 위장염, 구토, 설사, 화상 및 갈증 멈추는 효능이 있다.



4월상순 중부지역의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락이다.



간혹 이런 흰색 변이종도 발견된다.

꽃이 진 다음 그 자리에 맺히는 종자 모습이다.



가. 번식

알뿌리를 이용한 영양번식은 어렵다. 생장습성상 어린 알뿌리는 아래쪽에서 나와 매년 땅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이다. 6월이 되기 전에 잘 여문 종자를 따서 바로 뿌리면 이듬해 봄에 싹이 나온다. 매년 4월에 싹이 나와 1~2개월 정도 자라다 온도가 올라가는 5월 하순경부터 휴면에 들어가서 땅위의 잎들은 말라버린다. 따라서 실제 생장기간이 짧아 씨앗부터 꽃이 피기까지 5~6년이나 걸린다.

나. 재배적지


얼레지는 고온과 강한 직사광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낙엽수 아래처럼 이른 봄에 햇빛이 충분히 들지만 점차 그늘이 지는 곳이 좋다. 땅은 부엽토가 많은 비옥한 곳이어야 알뿌리 비대가 좋아진다.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는데다 옮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므로 처음에 심을 때 적당한 곳을 정해 심어야 한다.

다. 씨앗파종

화분에 직접 뿌릴 경우 토심이 깊고 통기성이 좋은 화분에 뿌린다. 가능한 많이 뿌려 알뿌리가 크게 자랄 때까지 2~3년 정도 그대로 두면서 마르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 해준다. 여름에 잎들이 없을 때도 뿌리는 호흡을 하므로 지나친 고온은 피하는 것이 좋다. 화분은 꽃이 진 뒤부터 그늘진 곳에 두었다가 나중에 잎이 완전히 말라죽고 나면 다시 시원하고 양지바른 땅위에 놓아두는 것이 좋다. 정원에 씨앗을 뿌릴 때는 낙엽수 아래에 땅을 미리 깊이 파서 부드럽게 하고 거름기가 충분하도록 부엽토를 넣고 잘 섞어 그 위에 뿌린다. 씨앗을 뿌린 다음부터 싹이 나올 때까지 마르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 한다.

산속의 계곡 주변 부엽토가 많은 곳에서 군락을 이룬다.

3. 물주기 및 시비관리

물은 잎과 꽃대가 한창 자라는 3~5월에는 하루 한번씩 준다. 여름 가을에는 잎은 보이진 않지만 땅속에 알뿌리가 자라고 있으므로 2~3일 간격으로 한번씩 주면 된다. 겨울동안에는 정원에 있는 것은 그대로 뒀도 되지만 화분에 심어진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규칙적으로 주어야 한다. 화분에 심어진 것들은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보다 건조해서 말라죽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말고 규칙적으로 물을 줘야 한다. 한창 잎이 자라고 꽃이 필 때는 액비를 한번씩 준다. 그 이후부터는 화분위에 유기질의 덩이비료를 올려두어 물을 줄때마다 조금씩 녹아 들게 한다. 



꽃잎 안쪽에 W자 모양의 무늬들이 연결되어 있다.